

# 재속 프란치스코회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하느님을 향한 인간 정신의 여정

제 07-12호 2007년 12월 21일 발행

St. Bonaventure Fraternity of the Secular Franciscan Order

월례회: 매월 셋째 금요일 7:30 PM 반모임: 매월 넷째 일요일 12:00 웹사이트: [kr.blog.yahoo.com/bonasfo](http://kr.blog.yahoo.com/bonasfo)  
장소: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회원은 세례성사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교회의 산 지체가 되었으며, 서약함으로써 교회와 더욱 친밀히 결합하게 되었으므로, 생활과 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의 사명에 대한 증인과 도구가 되어야 한다.

- 회칙 제6조

+++

**성** 프란치스코에게서 영감을 받고, 또 그분과 함께 교회를 재건하도록 불리운 회원은, 사도적 결실을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신뢰와 개방적인 대화로써 교황과 주교들과 사제들과 전적인 친교 안에서 살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

**“성 프란치스코에게서 영감을 받고, 또 그분과 함께 교회를 재건하도록 불리운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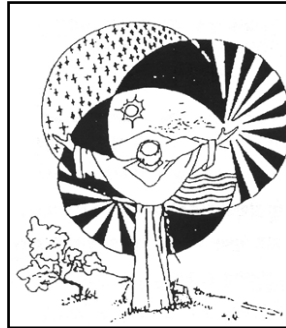
교회를 재건하는 일은 프란치스코인의 사명이다. 성 다미아노 십자가상의 예수께서는 “가서 나의 집을 고쳐다오” 하시면서 프란치스코를 교회의 재건 사업에 초대하셨다(1썰 18; 2썰 10.11). 이 사명은 교회를 새로이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쇄신하는 것이다.

교회를 쇄신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태도가 요청된다.

**첫째,**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느님의 계획에 대한 심원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회칙 4-5조 참조).

**둘째,** 작음의 정신과 겸손한 자세로 묵묵히 활동해야 한다(권고 12 참조).

**셋째,** 인내심과 자아포기의 정신, 보수나 높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자세, 외적인 행동보다는 주님과 함께하는 데 목적을 두는 성실한 자세가 요청된다.



회원은 교회를 ‘재건하라’는 성소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교구 안에서 실현 되도록 자기 소명을 수행하고, 사도적 활동을 실현하는 지역 교회와의 친교를 사랑해야 한다(회헌 100,1).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은 지역 교회 안에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며, 교구 내의 사도적 활동 및 사회 활동을 도와야 한다.

그리고 봉사의 정신으로 교회 안의 다른 단체와 협력하고 사목 기구에 참여하며 재속프란치스코회로서 교구 생활에 동참해야 한다(회헌 100,2). 한 본당 안에 설립된 형제회는 본당 공동체와 전례적이며 형제적인 관계를 활성화하는 데에 협력해야 한다. 사목 전반에 걸쳐 특별히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전종과 영성에 부합하는 활동에 투신해야 한다(회헌 102,1). 프란치스코 수도자에게 맡겨진 본당의 형제회는 풍성하고 생기 있는 상호협력 가운데에 프란치스코 은사를 전달하고 증거한다. 따라서 복음 정신과 프란치스코 생활 양식의 전파에 수도자와 하나가 된다(회헌 102,2).

프란치스코이며 재속인으로서 성소에 충실하고 열린 형제애를 증거하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 제공하는 봉사의 모습이다. 회원은 넘쳐흐르는 사명감으로 교회 안에서 신뢰받도록 할 것이다(회헌 100,3). -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에서



보나벤투라 형제회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한 기쁘고 좋은  
성탄절 맞으시고 2008년에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여 평화로운 한해 되길 기도합니다.



## 대림 시기: 신학적 의미와 영성

대림 시기는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지속적인 대림 시기를 살아야 하는 교회에 깊은 신학적 의미를 보여 주는 전례 시기이다. 구원 신비의 종말론적 차원이 강조되는 시기: 인간 역사는 하느님의 구원 약속이 실현되는 장소이다.

그리스도는 육신을 취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구세주가 되셨다. 이 부활하신 분이 시간이 다 찼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것이 바로 창조의 완성임을 증언하는 것이 대림 시기이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서 순례하는 동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이미" 완성된 구원과 아울러 모든 신앙인 안에서 장차 실현되어야 할 구원과 마지막 날 구세주요 심판자로 다시 오시어 완료하실 구원 경륜의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끊임 없이 산다.

대림 시기의 전례는 이와 같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구세주를 깨어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를 흐트리지 않도록 강조한다. 회개에 찬 기다림의 시기: 대림 시기는 신앙인으로서 항상 지녀야 할 자세. 즉 회개에 찬 기다림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 영성의 학교이다. 그래서 이 시기의 전례는 신앙인들에게 구세주의 오심을 기쁨과 희망 속에서 깨어 기다리도록 강조한다. 첫 주부터 "야훼여, 내 영혼이 당신을 우러러 뵈옵니. 나의 하느님, 당신만을 믿사오니, 부끄러운 꼴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으스대는 꼴 보지 않게 하소서"(시편 25편)라고 고백한다.

게시의 하느님은 약속에 충실한 분이시기에 약속한 구세주를 깨어 기다릴 때 신앙인 개개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나 교인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드러난 실재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구세주가 오고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구원의 소식은 신앙인들에게 기쁨으로 가득 찬 새로운 미래를 약속한다. 지금은 거울을 통해서 희미하게 보지만 어느 날 얼굴을 맞대고 볼 날이 올 것이기에(1고린 13,12) 교회는 이 만남을 깨어 기다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 대림 시기에 교회가 드리는 기도문 "오소서, 주 예수여!"(묵시 22, 20)는 기쁨에 차서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회개의 시기: 주님께로 향하는 회개 없이는 그분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삶을 정비하고 새롭게 주님께로 향하여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 시기의 영성이다. 가깝게는 임박한 성탄을,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날에 오실 구세주를 만나뵈올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육화를 통하여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오신 하느님은 당신과 친교를 맺도록 인간을 부르시고 당신으로부터 떨어진 사람이 다시 당신

께로 향하도록 끊임없는 회개를 촉구한다. 대림 시기는 이렇게 회개를 재촉하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에 응답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자 요한의 소리는 참으로 대림 시기의 소리이다.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닦아, 오시는 그분을 영접하라고 재촉하는 외침이다. 길을 닦는 방법은 무엇인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즉 예수가 "복된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됨으로써 하느님과 형제들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 유래

교회 안에서 대림 시기의 풍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4세기 말경에 스페인과 갈리아 지방에서 성탄 대축일을 앞두고 6주간 동안 참회의 기간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때의 대림시기는 전례와는 상관없이 성탄을 준비하기 위한 금욕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 기도는 의무라기보다 특권이다

영혼에 유익한 일들이 다 그렇듯,  
기도에도 훈련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하느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책임과 의무보다 우정에 더 가까운 모습일 것이다.

기도의 과정에는 환희의 순간과 무감각한 시간이  
공존한다.  
아무 생각 없이 방심할 때가 있고 민감하게 집중할  
때가 있다.  
기쁨이 폭죽처럼 터지는 시점이 있는가 하면  
초조해서 미칠 것 같은 시간도 엄연히 존재한다.  
쉽게 얘기해서,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특성들이 모두 나타난다는 말이다.

기도가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도를 배워야 한다.  
여태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별었던 씨름은  
대체로 두 가지 주제를 맴돌았다.  
'하느님은 어째서 인간이 기대하는 대로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것과  
'나는 어째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다.  
기도는 그 두 가지 주제가  
한데 겹쳐지는 중요한 지점이다.

- 피립 얀시, <기도>중에서

## 마음을 움직이는 특효약

중국 속담에  
"미소 지을 수 없는 사람은  
상점을 열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지 못하는 사람의 상점은 100퍼센트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미소 띤 얼굴은 사람을 불러들이는  
초청장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기도 하고,  
함께 있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웃는 가게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손님도 많습니다.

그러나 웃음이 없는 가게에는 손님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미소는 가장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의 밑천이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갖도록 해주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 김홍식의 '더 가깝지도 더 멀지도 않게' 중 에서 -

## 비망록

남을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싶었는데  
남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가난한 식사 앞에서 기도를 하고  
밤이면 고요히 일기를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구겨진 속옷을 내 보이는 듯  
매양 허물만 내보이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사랑하는 사람아  
너는 내 가슴에 아직도  
눈에 익은 별처럼 박혀 있고  
나는 박힌 별이 돌처럼 아파서  
이렇게 한 생애를 허둥거린다

- 문정희 -

## 보나벤투라 형제회 소식난

✦ 1월 27일 일요일 12시에 신년파티겸 반모임이 한테레사 자매택에서 있겠습니다.

✦ 2008년 2월부터 합동 반모임은 4째 일요일 12시에 조로사 자매택에서 있겠습니다.

✦ 2007년 연말을 맞아 그 동안 밀린 회비와 후원회비를 완납하도록 합시다.

✦ VA/MD 합동 대림 피정이 12월 2일 웨스트 버지니아 피정센터에서 안드레아 신부님과 옥타비오 수사님을 모시고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 2008년 1월6일 4시부터 메릴랜드에서 김병두 신부님을 모시고 양성 교육이 있겠습니다.

✦ 2008년 5월에 이태리 프란치스칸 성지 순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윤요안나 (703.426.5613) 자매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기도 중 기억합시다 ...

- ✦ 아픈 형제 자매들을 위해 ...
- ✦ 보나벤투라 형제회와 회원 가족들을 위해 ...
- ✦ 세계의 평화를 위해 ...
- ✦ 안티모 신부님을 비롯해 공부하시는 수사님, 신부님들을 위해 ...

\*정정: 김안티모 신부님 주소는 Centerbury 가 아니고 Canterbury 입니다.  
Br. Antimo Kim  
Franciscan International Study Centre  
Giles Lane, Canterbury, Kent, CT2 7NA  
United Kingdom

### 12월 월례회 시간표

7:00 PM - 다과/친교  
7:30 PM - 신부님 강론  
8:00 PM - 양성  
9:30 PM - 월례회/미사



### ✦ 미사성가: 지침서 ✦

입당: 76번 임하소서 임마누엘  
봉헌: 35번 새로운 계명  
성체: 4번 작은 자의 열망  
마침: 65번 천상의 어머니

미사해설: 남야고보  
제1독서: 이아모스  
제2독서: 김에피파나

### 12월 본명축일을 축하합니다



3일: 박세종 루시아  
8일: 조은자 마리아, 최 마리아  
14일: 박상태 요한  
27일: 강동훈 요한  
29일: 남효선 엘리사벳

12월 간식 담당: 하진순, 김운옥, 조순우

1월 간식 담당: 강옥희, 강동훈, 강스텔라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재속 프란치스코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회장: 한기남 703-425-9445 man5ki@yahoo.co.kr  
부회장: 강동훈 703-585-2700 johnkang52@hanmail.net  
서기: 김미경 703-680-0274 talmadge01@msn.com

회계: 조순우 703-759-9429 swcsfo@yahoo.com  
양성: 강옥희 703-440-8010 margarita222@daun.com  
영적보조: 조기영 OFM choandl@hanmail.net